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 용수 | (주)도화증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lyswater@dohwa.co.kr)

1. 금호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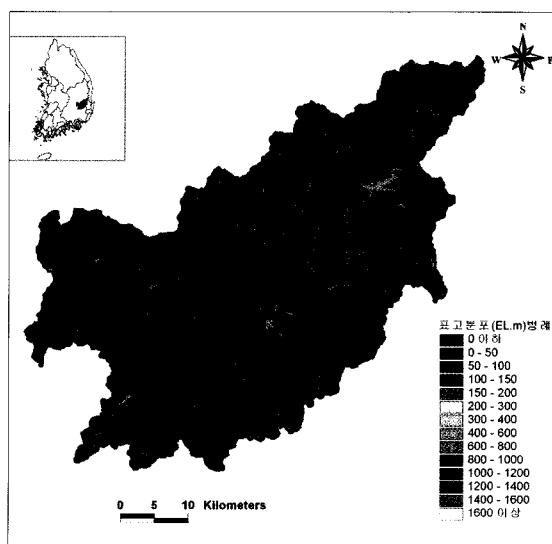
금호강(琴湖江)은 낙동강의 지류 중 남강 다음으로 긴 하천이다. 낙동강 유역 동쪽인 동경 $128^{\circ} 26' 38''$ ~ $129^{\circ} 12' 25''$, 북위 $35^{\circ} 42' 5''$ ~ $36^{\circ} 14' 15''$ 사이에 있는 유역으로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포항시, 칠곡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서구, 중구, 수정구를 포함하는 1광역시 1도 3시 2군 3구를 포함한다.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가사리 744고지에서 발원하여 죽장면을 남서류하여 영천시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에서 서류하여 고촌천을 합하고 계속 서류하면서 자호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이 영천시에서 합류하여 국가하천 금호강을 형성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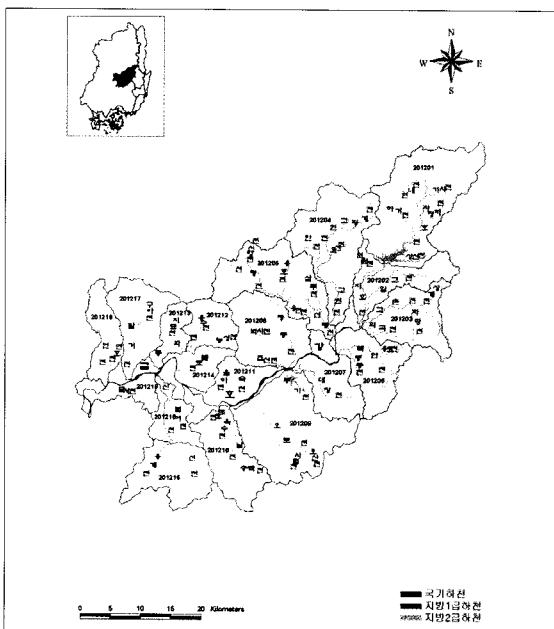
다. 이후 서류하면서 신령천, 북안천, 대장천, 청통천, 부기천, 오로천이 유입하면서 경산시를 관류하고 대구광역시에 들어와 북쪽으로 만곡(彎曲)하여 서류하다가 달성군에 들어가서 남류하면서 달성군 다사읍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유역에 동서로 긴 띠 모양의 금호평야가 펼쳐졌는데, 낙동강 연안에 남북으로 펼쳐진 평야와 이어져서 丁자형을 이루는 대구분지의 일부가 된다.

금호강 유역의 유역면적은 낙동강 유역의 8.8%에 해당하는 $2,092.42 \text{ km}^2$ 이다. 이중 총 산림면적은 $1,389.89 \text{ km}^2$ 로 유역면



〈그림 1〉 금호강 표고분포도



〈그림 2〉 금호강 하천현황

적의 66.4%를 차지하며, 농경지 면적은 602.84km²로 유역면적의 28.8%를 차지한다. 기타 도심지·초지·나대지·수역 등은 유역면적의 4.8%인 99.6km²이다. 유로연장은 118.99km, 최원 유로연장은 119.23km이다. 유역둘레는 326.72km이고, 유역평균폭은 17.55km, 유역평균표고는 EL.236.3m, 유역평균경사는 29.45%이다.

금호강의 발원지에서 가까운 가사령은 낙동정맥의 중요한 날들머리 지점이며 발원지가 있는 산의 꼭대기는 낙동정맥에서 보현지맥이 갈라지는 중요한 지점으로 많은 등산객이 늘 불비는 지점이다.

금호강은 북쪽으로는 청송을 지나는 길안천 유역 및 위천 유역과 접해있고, 동쪽으로는 영덕오십천의 지류인 대서천 유역과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형산강 지류인 기계천 유역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밀양강의 지류인 동창천 및 청도천 유역과 접해 있다.

금호강의 유래에 대하여는 경북지명유래총람에 “바람이 불면 강변의 갈대밭에서 비파(琴)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물이 맑고 잔잔하다” 하여 금호(琴湖)라 하였다고 적혀있다.

문헌상에 있는 금호강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中宗 25년, 1530년) 제26권 대구도호부 편에 “금호(琴湖) 부의 서북으로 11리에 있다. 그근원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영천(永川郡) 보현(普賢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모자(母子山)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 사문진(沙門津)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¹⁾

금호강의 발원지를 영천의 보현산과 모자산으로 칭하는데 대동방여전도를 살펴보면 보현산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은 북천(北川)으로 오늘날의 고현천을 말하는 것이며, 모자산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은 죽장천(竹長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자호천을 말하는 것으로 정확한 발원지라 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현산과 모자산의 위치도 현재의 지명과는 불일치하여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中宗 25년, 1530년) 제22권 영천군 편에 “유현(柳峴) : 고을 남쪽에 있으며, 청경산에서 나와서 명원루(明遠樓) 밑을 거쳐서 북천과 합하여

흘러 가다가 하양현(河陽縣)의 남천이 되었다. 북천 : 고을 북쪽 6리에 있는데, 모자산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청통역(淸通驛)에 이르고 남쪽으로 남천과 합해서 동경도(東京渡)가 되었다. 이 고을이 두 물이 합류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영천(永川)이라고 이름 했으며 영(永) 자는 이수(二水)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대동방여전도를 살펴보면 유현은 영천군 북쪽의 청송군과 경계지점에 있으며 청경산은 오늘날의 임고면과 고경면 사이에 솟아 있는 산줄기의 어디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술된 것과 지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원루는 오늘날의 영천시 조양공원에 있는 것으로 조양각(朝陽閣)이라고 하며 서세루(瑞世樓)라고도 불리는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 공민왕 때 포은 정몽주와 지방유림이 힘을 합하여 지은 누각이다. 따라서 유현이라고 불렸던 하천은 남천(고촌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북천은 오늘날의 고현천이며, 이 두 하천이 합해져서 동경도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발원지에서 흘러나오는 죽장천에 관하여는 기술이 없다.



〈그림 3〉 조양각에서 본 금호강 출처 : 이후블로그
(http://kr.blog.yahoo.com/kyong5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中宗 25년, 1530년) 제27권 하양현 편에 “남천(南川) : 현의 남쪽 5리에 있으며, 영천군(永川郡)의 동경도(東京渡) 하류(下流)이다.”고 되어 있어 하양에 와서는 남천이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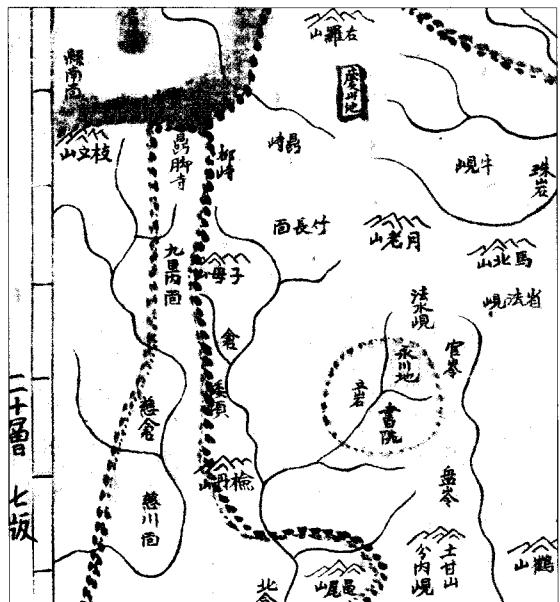
1) 한국고전번역원 : [http://www\[minchu.or.kr/](http://www[minchu.or.kr/)

같은 책 경산현 편에 “황율천(黃栗川) : 현의 북쪽 9리에 있다. 영천군(永川郡) 보현산(普賢山)에서 발원하여 성주(星州) 무계진(茂溪津)으로 들어간다. 남천(南川) : 현의 남쪽 1리에 있다. 마암산(馬巖山)에서 발원하여 황율천(黃栗川)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 경산에 와서는 황율천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천은 오늘날의 오복천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성주 무계진은 오늘날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를 말하는 것으로 금호강이 낙동강과 합한 후 면 거리를 지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이상의 기술로 살펴볼 때 금호강의 발원지는 보현산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영천에서는 복천, 하양에서는 남천, 경산에서는 활율천 그리고 대구에 와서는 비로소 금호강이라는 이름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풍이 두드러졌던 조선조 정조(正祖)와 순조(純祖) 때 옥유당(玉菟堂) 한치윤(韓致齋 1765~1814)이 중국과 일본의 각종 전적(典籍) 540여 책에 나오는 우리나라 관계의 기사를 뽑아 편찬한 원편(原篇) 70권과 한치윤이 죽은 뒤 그의 조카인 한진서가 뒤를 이어 편찬한 속편(續篇)인 지리고(地理考) 15권, 도합 85권으로 이루어진 기전체(紀傳體) 양식의 한국 통사(韓國通史)인 《해동역사》의 속집 제14권 산수 2편의 낙동강편에 보면 《수도제강(水道提綱)》²⁾에 기술되어 있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금호강(琴湖江) : 이 물은 동북쪽에 있는 경주(慶州) 서북쪽과 영천(永川) 동남쪽의 모자산(母子山) 서쪽 기슭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하양성(河陽城)의 남쪽을 경유한다. 다음 또 다시 서남쪽으로 흘러 공곡성(恭谷城) - 삼가 살펴보건데, 바로 칠곡성(漆谷城)의 잘못된 표기이다-의 남쪽 경계를 지나 꺾어져서 정남쪽으로 흐르다가 대구성(大邱城)의 서쪽을 지난 다음 다시 남쪽으로 흘러와서 합류한다. - 삼가 살펴보건데, 금호강은 그 근원이 청송부(青松府)의 보현산(普賢山)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영천(永川)과 하양(河陽) 두 현 사이를 지나와 꺾어져서 서쪽으로 흘러 대구부의 북쪽을 지나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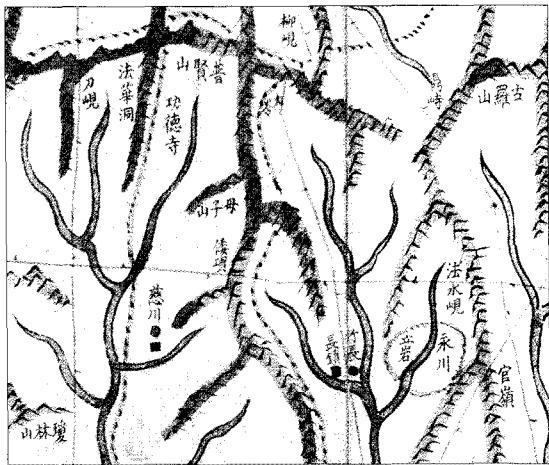


〈그림 4〉 청구요람(금호강 발워지 인구)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금호강의 발원지를 보현산이라 칭하고 있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지지(大東地志, 哲宗 14년, 1863년) 영천군편에 『南川 : 源出普賢山之南南流經竹長面界過立岩川西南流至郡東過淸景山川經郡南一里其下爲東京渡卽琴湖江上流 北川 : 源出普賢山之南南流經慈川面新寧之古縣面至郡西清通驛之南與南川合爲東京渡 立岩川 : 源出竹長面之法水峴西南流經聖穴入于南川 凡魚川 : 南十五里出慶州四龍山西北流入于東京渡 淸景山川 : 出淸景山西流至郡東入南川』라고 되어 있다. 이를 풀이하면 “남천 : 보현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죽장면의 경계를 지나 임암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서남류하여 군 동쪽의 청경산천과 만나 동경도에 이르니 즉 금호강 상류이다. 북천 : 보현산에서 발원하여 남류하여 자천면의 신령에 이르고 고현면을 지나 군의 서쪽의 청통역을 지나 남천과 합류하여 동경도에 이른다. 임암천 : 죽장면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법수현에서 남류하여 남천에 입수된다. 범어천 : 남쪽 시오리 경주의 사룡산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흘러 동경도에 입수된다. 청경산천 : 청경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을 지나 군의 동쪽에서 남천에 유입한다.”가 된다.³⁾ 즉 영천의 하천 중 금호강과 관련이 있는 하

천은 남천, 북천, 입암천, 범어천, 청경산천이 있는데 이중 남천 및 북천은 보현산에서 발원하고 입암천은 죽장면에서 발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입암천이 현재의 발원지와 가장 가까운 하천이 된다. 그리고 범어천 및 청경산천은 지류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림 5〉 대동방여전도(금호강 발원지 인근)

같은 책 대구편에 보면 『琴湖江：源出青松之普賢山南流爲冰川爲慈乙阿川至屏風岩過新寧之西川經永川郡至竹坊山之陽左過南川凡魚川右過匙川左(堤堰一百三)過靈芝山川經河陽縣南西流左過觀瀾川爲黃栗川至盤溪左過慶山之南川至府北爲泗水箭灘左過新川右過解顏川入營川西爲琴湖津經河濱古縣入于洛東江』로 되어 있다. 위의 글에서 금호강의 발원지를 보현산이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옛날 사람들은 금호강의 발원지를 보현산으로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류는 대동방여전도 및 유사한 고지도를 살펴본 바 대동소이하므로 더 이상의 옛 지도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상으로 고문헌에 나타난 금호강에 대한 흔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현대의 각종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백과사전을 살펴본 바 먼저 애후백과사전에 『경상북도 남동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강. 총길이 117.5km, 총면적 2,053km². 포항시(浦項市) 죽장면(竹長面)의 가사령과 승법령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경산시(慶山市)를 관류하고 대구의 동촌 부근에서 문암천(門巖川)을 합한 뒤 서쪽으

로 흐르다가 달성군(達城郡) 하빈면(河濱面)에서 낙동강에 합류한다. 낙동강의 지류 중 두 번째로 크며, 주변의 지질은 고생대에서 중생대에 걸쳐 형성된 퇴적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역에는 긴 땅 모양의 금호평야(琴湖平野)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구·영천·경산 등의 대도시가 발달해 있고 대구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한다. 남쪽으로 삼성산·대왕산·구룡산을 분수령으로 밀양강(密陽江) 수계와 경계 지어지며, 북쪽으로는 팔공산·보현산·문봉산·구암산을 분수령으로 위천 유역과 경계 지어진다. 대구·경산·영천을 중심으로 한 금호강 유역은 사과산지로 유명하다.』⁴⁾라고 되어 있어 발원지를 가사령과 승법령(성법령)으로 표기하고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반면에 브리태니커 사전을 인용한 다음 백과사전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영천시·경산시와 대구광역시를 서류하여 낙동강에 흘러드는 강. 길이 118km, 유역면적 2,053km².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영천시 자양면·고경면과 중심시가지, 경산시 일대를 지나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과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 경계에서 낙동강 본류에 유입된다. 상류로부터 자호천(紫湖川)·임고천(臨皐川)·고촌천(古村川)·고현천(古現川)·신령천(新寧川) 등의 지류가 곳곳에서 합류된다. 금호라는 명칭은 금호읍 강변 구릉지의 갈대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치 비파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강 유역에는 넓은 금호평야가 동서로 긴 땅 모양으로 발달했고, 일대의 대구·영천·경산 등지는 사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동대구와 영천시를 잇는 대구선이 금호강과 나란히 달리고 있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의 청못[靑堤]은 삼한시대에 축조되어 현재까지 관개에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저수지로서, 저수지 둑 앞에 자연판석으로 된 청제비(靑堤碑)가 남아 있다.』⁵⁾라고 되어 있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금호강의 발원지도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2) 수도제강(水道提綱) : 중국 청나라 제소남이 긴릉연간에 지은 전국의 하천지.

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http://e-kyujanggak.snu.ac.kr>

4) 애후 백과사전 : <http://krdic.yahoo.com/>

5) 다음 백과사전 : <http://enc.daum.net/dic100>

기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Internet portal site를 중심으로 검색한바 엠파스, 네이버 등의 백과사전에는 금호강에 대해 비교적 짧은 글로 소개하고 있으며, 발원지는 야후의 그것과 같이 대동소이하다.

금호강의 상류에는 영천댐이 있다. 영천댐은 포항제철 건설 당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는데 이후 댐 하류지역의 용수공급 및 하천유지용수를 위하여 이웃하는 길안천에서 도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고 이를 다시 포항 및 금호강 하류로 보내는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금호강 중하류지역의 하천환경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다.



〈그림 6〉 영천댐

영천댐

영천댐은 경상북도 영천군 지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는 42m, 길이는 300m, 저수용량은 96.4백만m³이다. 본 댐은 포항시, 경주시 및 영천시 등 경북 남동부 지역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1974년 11월 착공하여 1980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또한, 하류지역의 관개용수 공급 및 금호강의 하천유지용수를 위한 수원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연간 용수공급량은 229백만m³이다. 조절지 역할을 하는 안계댐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⁶⁾

2. 현지 답사

나는 금호강 발원지인 포항시 죽장면 일대(영천, 포항 등)를 태어나서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여태까지 회사생활하면서 출장으로 영천, 포항 및 영덕 일대를 현지조사차 들려 본 적이 있어 경치 좋고 물 좋은 지역인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님이 6·25 전쟁 때 영천지방으로 피난을 갔다 오셨

다는 말씀을 듣고 자라서 영천지방이 낯설지 않은 고향동네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든다. 또한, 금호강이라는 단어는 웬지 내 어릴 적 고향의 강(동강 줄기인 기화천)과 같은 친근한 느낌의 단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사람이 금호강 강변에서 며 감고 고기잡이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어릴 적 얘기만 하면 거기가 어딜까? 항상 궁금하였다.

금호강의 발원지는 인터넷 및 지도를 확인한바 경북 포항시 죽장면 가사리에서 상옥리로 넘어가는 가사령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밀수치지도(1/5,000)를 가지고 이리 저리 발원지의 가능성을 확인한바 낙동정맥에서 보현지맥이 갈라지는 중요한 지점으로 많은 등산객이 늘 봄비는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호강 발원지 답사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인 유건상이 와 함께 가기로 오래전에 약속을 해 놓았었다. 친구는 요즘 등산의 재미에 푹 빠져 있어 답사길 동무 하기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답사길이 등산보다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었다.

2008년 5월 16일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 간단하게 몸을 씻고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며 장구를 챙겼다. 밤 9시쯤 친구가 와서 차를 물고 이런저런 지난 얘기를 하면서 밤 고속도로를 달려 대전, 대구를 거쳐 영천시내에서 금호강이 바라다 보이는 어느 여관에 짐을 풀고 내일 답사길에 대한 얘기와 장문으로 내려다보이는 금호강의 야경을 감상하다가 잠을 청했다.

17일 아침 인근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발원지로 향하였다. 먼저 상류로 향하면서 영천댐에 들러 영천댐의 최근 모습을 확인하니 우리나라 최대의 모닝글로리(morning-glory)형 여수로가 건너편에 보이고 그 밑으로 최근에 치수 능력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증설한 수문 및 보조여수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90년대 중반 출장 때 한참 가뭄이 깊어지고 있어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은 거북 등결 같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기억이 있었던 나는 저수량도 풍부하고 새로운 시설로 단장한 영천댐은 더 없이 반갑게 느껴졌다.

영천댐 호수인 자양호를 끼고 돌아 계곡 상류로 향하였다. 영천댐 하류의 고촌천을 만나기 전 금호강은 자호천이라 불린다. 따라서 우리는 자호천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는 것이다. 영천시 자양면을 지나 포항시 죽장면으로 들어서니 하천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좌우의 산줄기는 높아만 간다.

죽장면에서 간단한 산행 점심거리를 샀다. 점심이라야 김밥 2줄과 정상에 올라가면 떡을 토속막걸리 1통이 전부지만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오기까지 체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데없이 중요한 준비거리이다.

죽장면의 입암서원 앞을 지나쳤다. 입암서원은 입암리(立巖里)에 있는 서원으로 1657년(효종 8) 임진왜란시 이 지방에 피난 와서 살다가 죽은 문강공 장현광(1554~1637)을 봉안하고 지방 유림인 동봉 권극립(1558~1611), 우현 정사상(1563~1623), 윤암 손우남(1564~1623), 수암 정사진(1567~1616)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한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으나, 1913년에는 강당이, 1974년에는 묘우(廟宇)가 복원되었다. 입암서원은 목조 기와집으로 기역자형이며 그 일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경내에는 3칸의 묘우, 3칸의 강당과 부속건물인 일제당·만활당(萬活堂) 등이 있다. 여기서는 매년 2월 하정(下丁; 세 번째 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서원은 경상북도기념물 제70호, 서원 안의 향나무는 기념물 제71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다.



〈그림 7〉 입암서원의 일제당(日磚堂)과 선바위(立岩)
(출처) 이관오 : <http://user.chollan.net/~jm5953/>

입암리를 지나면서 금호강은 가사천으로 변신을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밭원지로 향하는 하천인 것이다. 가사천

은 가사리에서 상옥리로 넘어가는 가사령의 좌측에서 발원한다.

가사령에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고 장구를 챙겼다. 멀리 밭원지로 향하는 계곡이 보이고 가사령 옆 계곡을 향해 숲을 헤치며 아래로 내려갔다. 매우 가파른 경사진 지역이어서 계곡으로 내려가기 어려웠다. 나는 계곡에 달기 전에 돌밭에서 발걸음을 잘못 내디뎌 손목을 다쳤다. 이제 출발인데 손목이 매우 아팠다. 그러나 같이 간 친구를 생각해서 아픔을 참으며 계곡의 물가에 도착했다. 밭원계곡인 큰점밭골에 도착한 것이다.



〈그림 8〉 큰점밭골 계곡

이제부터는 물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다. GPS 및 지도를 확인하면서 계속 위로 향하였다. 계곡은 넓은 “U”자형이고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크고 작은 바위 및 자갈들이 하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

6)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 : <http://pohang.kwater.or.kr/>

며 개울의 물가에서 작은 돌을 들추니 갓 태어난 듯 싱싱한 가지가 활기차게 헤엄을 치고 있어 이 계곡이 청정계곡임을 알려주었다. 주위의 나무는 상수리나무가 많았으며 군데군데 산죽(조릿대)이 틈을 메우고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친구와 나는 계속해서 계곡을 올라갔다. 40분 정도 올라가니 계곡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 계곡이 오른쪽 계곡보다 물이 많이 흘러오고 있어 잠시 고민을 했다. 그러나 지도를 확인하니 오른쪽 계곡이 확실하게 발원지 계곡인 것 같아 판단되어 오른쪽 계곡으로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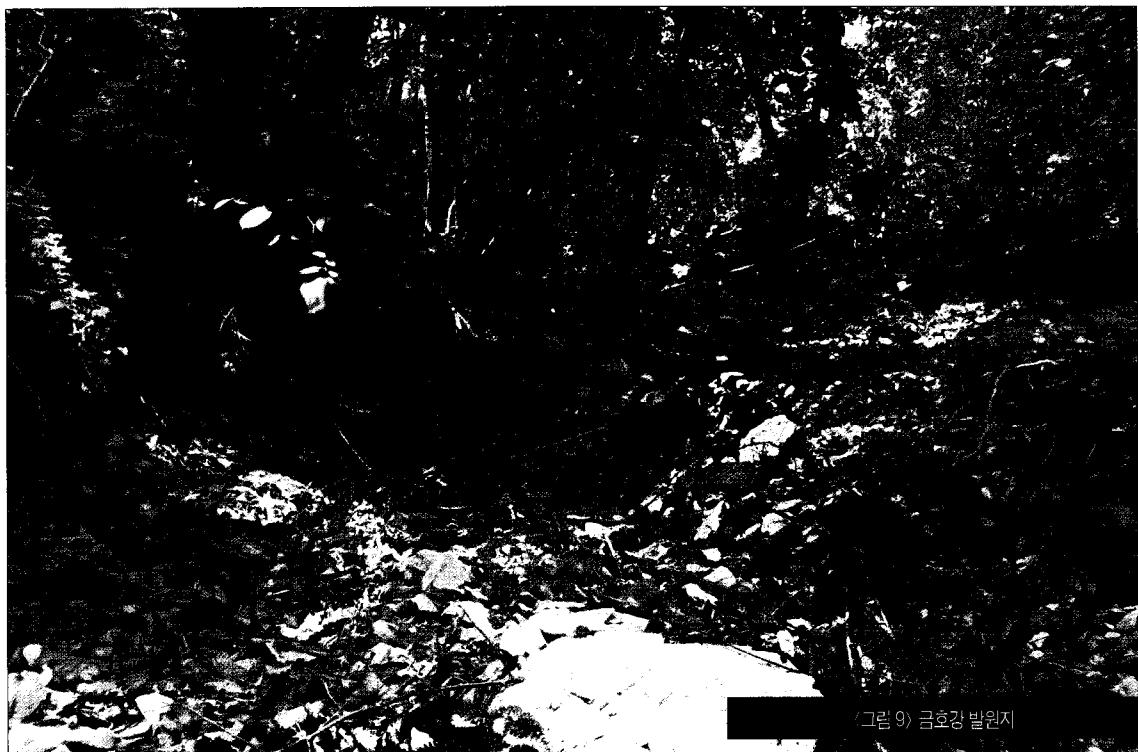
얼마쯤 올라가니 드디어 지도상 하천표기의 끝 지점에 다랐다. 그러나 계곡을 흐르는 물은 그 상류로 더 계속 향하고 있으므로 여기가 발원지는 아니었다. 친구와 나는 발원지 구별법에 대해 많이 대화를 하였다. ‘지도상 하천의 끝이 진짜는 아니다. 이렇게 찾아보아야 진짜 발원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일은 내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 될지도 모른다.’ 등이 주요 대화 주제였는데 친구는 내 말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역시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시간을 함께한 친구는 말 한마디에 서로 통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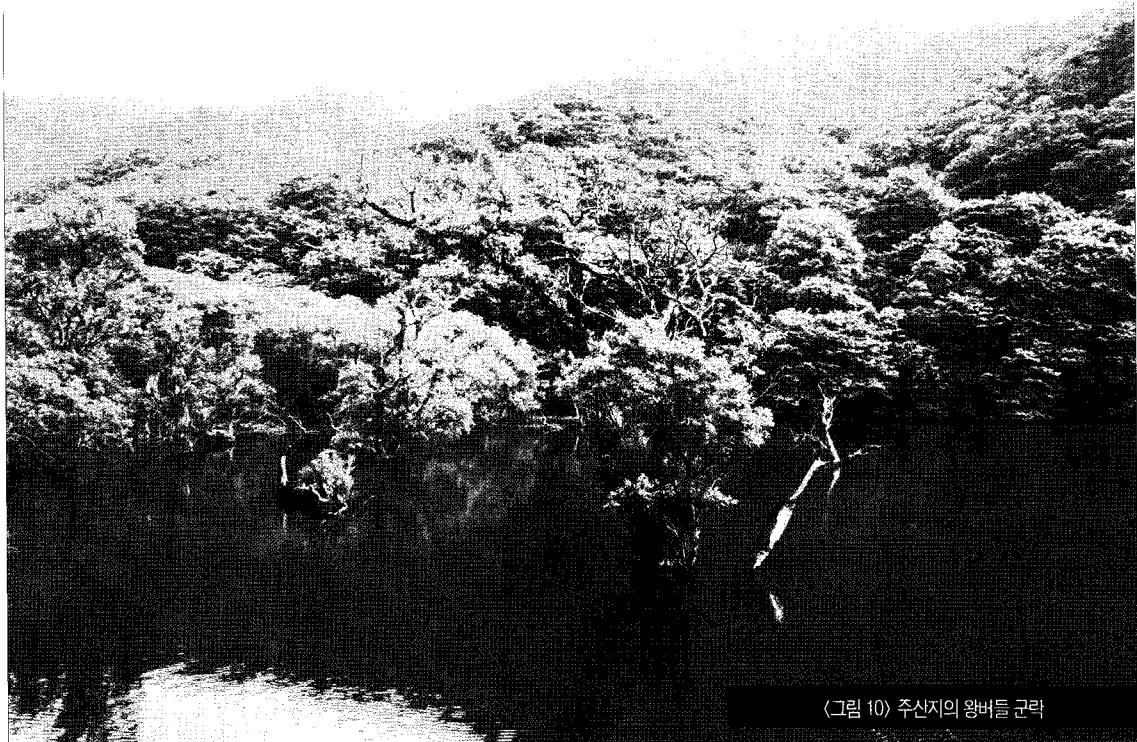
지도상 하천의 끝 지점에서 약 20m 정도 올라가니 매우 경사진 산비탈에서 봉락된 지점이 보였다. 낙엽이 많이 흘러져 있고 큰물이 날 때 흙은 쓸려가고 뒤에 남은 자갈도 많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주위는 넓은 “U”자형 또는 ”부채꼴“ 모양으로 발달해 있었다. 이런 점으로 판단할 때 이곳이 발원지가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GPS로 확인도 했다.

발원지를 찾고 보니 금호강의 발원지는 포항시 죽장면 가사리 744.6고지 동북계곡으로 EL.640m 정도의 위치로 확인되었다. 가져온 GPS를 확인하니 북위 $36^{\circ} 14' 24''$, 동경 $129^{\circ} 11' 38''$ (GRS80좌표계)로 측정되었다.

가파르게 경사진 산등성이를 힘겹게 올라갔다. 약 20분 정도 힘겹게 올라가니 산등선(마루금)에 다다랐다. 거기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744.6고지로 가서 가져온 절심과 막걸리를 들며 한참을 휴식을 취하였다.

휴식을 취하며 앉아있는 바로 옆에는 신기한 식물 한 그루가 있어 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 내가 매일 사무실에서 먹는 둥굴레차의 원료식물이었다.





〈그림 10〉 주산지의 왕버들 군락

친구와 나는 그 식물이 뭔지 이름을 모르는 채로 바로 옆 계곡의 밭원지를 확인하려 내리막길을 향했다. 이웃 계곡은 답사 결과 밭원지가 아니었다.

계곡을 내려와 주차한 곳으로 와서 이제는 주산지로 가기로 하였다. 주산지는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사진작가들에게 입소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제41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대상인 최우수작

품상, 2003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나는 사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산지에 한번은 꼭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가까운 곳에 답사를 왔다가 가는 길에 들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사령을 지나 상옥리에서 청송을 향하여 통점재를 넘고



〈그림 11〉 동굴례

동굴례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서식하는데 모든 부위가 모나지 않고 둉굴둥굴하다고 하여 동굴례라고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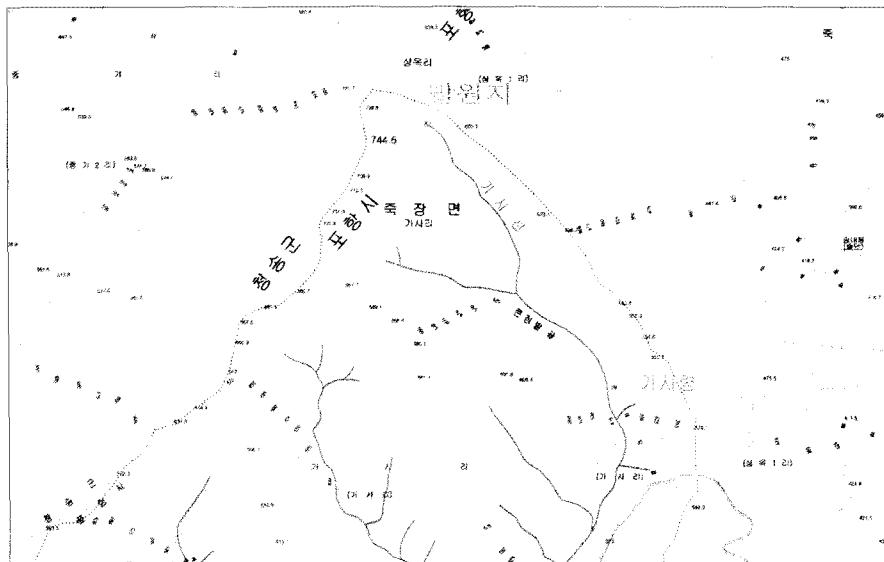
동굴례에 관한 전설 하나

오랜 옛날 가혹한 종살이에 지친 종 한 명이 산으로 도망쳤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리저리 찾다보니 동굴례를 발견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캐서 먹어보니 맛도 달짝지근하고 허기도 가시게 되어 이 동굴례를 계속 캐 먹으며 연명하였는데 어느 날 산으로 나물을 하러온 동네 사람이 이 종을 발견하고 양반에게 고하니 온 동네 사람들을 풀어서 잡으러 왔는데 이리저리 도망치던 종은 드디어 막다른 낭떠러지에 몰려 끔짝없이 잡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은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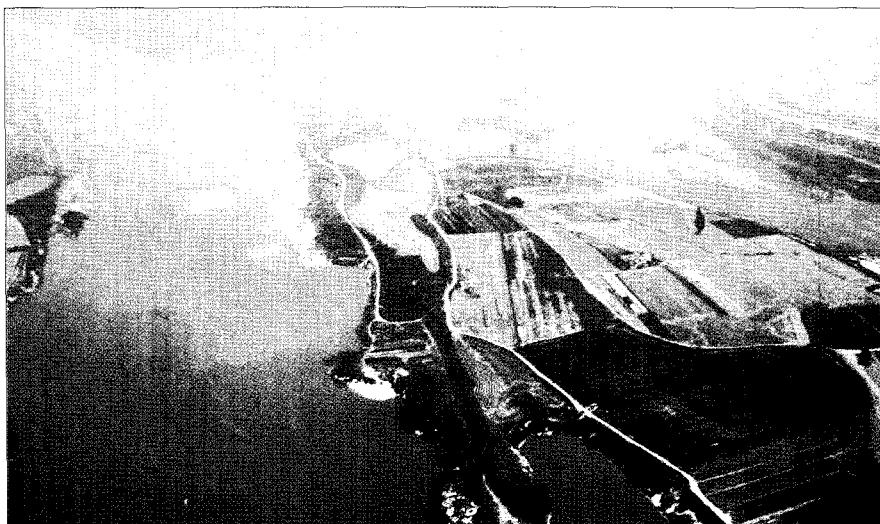
다 싶어 두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는데 신기하게도 하늘을 날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아무리 잡으려 해도 하늘을 날아다니니 잡을 수가 없어서 먹을 것으로 유인하려고 길목마다 고기와 맛난 음식을 놔뒀다고 합니다. 이에 종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기와 각종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날 수가 없어 잡히고 말았습니다. 양반은 잡혀온 종을 추궁하여 산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내었는데 그게 바로 동굴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굴례는 장복을 하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허기도 해결할 수 있는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일조를 한 중요한 구황식물이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려 주왕산 자락을 밟는가 싶더니 드디어 주산지 입구에 도착했다. 과연 주산지는 명성에 걸맞은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가져온 사진기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집

에 와서 확인하니 작품다운 사진은 몇 장 못 긴졌다. 저녁때 까지 사진 찍느라 배고픈 줄 몰랐으나 함께 한 친구의 재촉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



〈그림 12〉 금호강 발원지 위치도



〈그림 13〉 금호강 하구(낙동강 합류점)